

여성, 그 다름과

WOMAN THE DIFFERENCE AND THE POWER

그 힘

여성적인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
Feminine Art and Feminist Art



미술시평

미술에 있어서 페미니즘 운동

「여성, 그 다름과 힘」전을 보고

조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3월 26일부터 4월 25일 까지 한국미술관과 한국갤러리 두곳에서는 여성주의적 성향이 짙은 작가들이 모여 「여성—그 다름과 힘」을 주제로 미술에 있어서의 페미니즘 운동을 펼쳤다. 18인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매체와 양식에 구애됨 없이 페인팅, 형견, 콜라주, 조각, 설치, 퍼포먼스, 사진, 비디오를 통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과 그 힘으로 남성 중심사회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전시를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교수의 시각을 통해 작품을 중심으로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페미니스트적인 작품들이 전시된다는데, 무언가 느낌이 없을 수 없다. 아니, 모더니스트들이 참여했다던데 너무 이념적으로 읽히는 말도록 조심하자.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한가운데 웬 보따리들이! 널부러져 있는 울긋불긋한 보따리들을 보면서 천천히 머리를 굴려본다. 적극적으로 잘못읽기를 시작한다.



용인군 마복리의 한국 갤러리에서 있었던 참여작가 및 필자들의 자유토론 광경

오랫만에 강남 나들이를 한다. 토요일 낮 12시 반에 신촌에서 택시를 잡아타다. 아,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구나. 두시가 넘었다. 겨우 찾아낸 건물의 7층, 엘리베이터를 내려 할레벌떡 들어선 한국미술관에는 많은 여자들, 짙은 화장과 멋있게 차려입은 여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이미지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박탈당해 왔다고나 할까?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온 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머리로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책을 읽는 때위.

그러나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페미니스트적인 작품들이 전시된다는데, 무언가 느낌이 없을 수 없다. 아니, 모더니스트들이 참여했다던데 너무 이념적으로 읽히는 말도록 조심하자.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한가운데 웬 보따리들이! 널부러져 있는 울긋불긋한 보따리들을 보면서 천천히 머리를 굴려본다. 적극적으로 잘못읽기를 시작한다.



김수지작 「연역적 오브제」 천 1993

여성적 특성의 매체인 천을 사용, 보따리를 만들어 전시장 한쪽에 가득 쌓아 놓았다. 천작업을 통해 여성의 생각과 행위가 일치하는 「여성 미학」의 본질적 차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연역적 오브제」라는 어려운 제목이 붙여진 이수자씨의 보따리들은, 작가가 도록에서 「일상의 개념화」라는 식의 암시를 주고 있지만, 또 무수하게 변용가능한 천을 매개로 한 여성적 행위라는 암시 역시 주고 있지만, 내게는 영락없이 못내 풀리지 않은 자살한 여자들의 보따리들로 보인다. 그제 국민학교 동창과의 전화통화를 기억해낸다.

『죽었대, 글썄.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데리러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남자가 재혼을 했거든. 그랬더니 자살을 한거야.』

『아니, 너희들 너무 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니? 남자도 너무 했다. 그지?』

『남자가 무슨 죄가 있니? 애도 있는데 남자가 혼자 살 수 없잖아? 당연히 재혼을 하는거지. 그애가 원래 좀…….』

『나쁜 기집애들, 머슴마들…….』

난 주절거리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4년전에 어느 주부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적이 있다. 이상하게도 그 유서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의 빛을 한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능력있는 남편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못난 아내를 용서하라면서 자신의 무능만을 나무라고 있었다.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보따리를 쌌을까? 죽음으로 가는 그 보따리는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유서는 정말 그 보따리에서 나왔을까?

소박맞아 시집을 떠나는 며느리의 보따리, 새벽에 동구밖을 도망쳐 나오는 애기 밴 처녀의 보따리, 정신대에 끌려간 할머니가 품안에 꼭 안고 죽

었다는 보따리, 떠날 결심을 하고 채곡채곡 옷을 개켜 넣는 여자들의 마음이 담긴 보따리들은 아직 풀리지 않고 저렇게 싸여있다. 우리 근세사를 통해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보따리들을 쌌을까? 또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풀어지기를 기다리며 널부러져 있을 보따리는 얼마나 될까? 요즘 새댁들은 수가 틀리면 집을 나간다고 동통 난리를 피우면서 옷을 트렁크에 마구 던져넣는다던데, 그런 과시용 트렁크로 보따리 시대는 이제 마감하게 되는가? 청송맞고 궁상맞은 보따리들은 이제 그만 잊어도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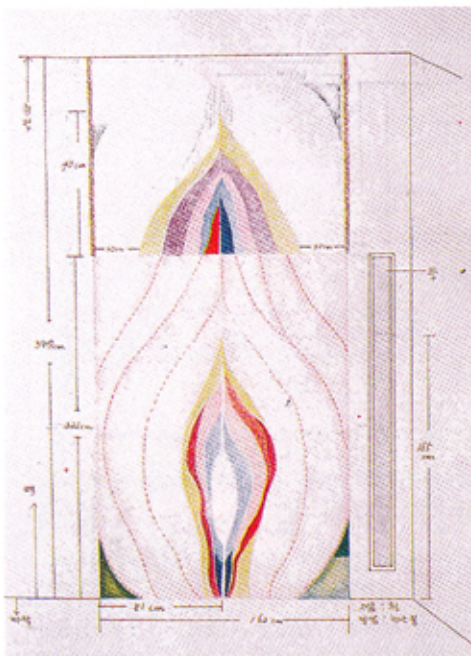
보따리들 옆에는 쇠침대가 놓여있다. 「기집애, 가시나」라는 별명으로 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자 호칭들을 수놓은 이불속에 한 여자가 박혀있다. 흐트러지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서 있다. 그런데 그 여자 허리 부분에 웬 시꺼먼 사람의 하체 마네킹이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다. 여자의 아랫도리에 박혀 있다. 강간 당하는 아내? 남편에게 몸을 파는 아내? 페미니즘에서 종종 있는 토론주제들을 떠올린

다. 생각보다 꽤 나갔구먼.

하민수의 「날개」앞에 멈추어 선다. 천 위에 바느질. 노란색, 또 빨간색 비단, 그리고 밤삼보 무늬들이 액자속에 갇혀 있다. 화려하게 비상하려는 꿈이 갇혀있다. 『날개선을 겹치고 바깥쪽으로 선을 더욱 날려 올리며 자유롭게……. 나비는 브라질산 파랑색의 손바닥만한 것……. 나비 주위의 재봉질 선은 적당히 나비가 휘저은 자취같다. 다시 날 수 있는 소망 같아 보이기도 하고 과거에 날아 보았다는 기록 같아도 보인다. 하여간 이제 작품은 액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뒤쪽 면에 나사를 조이고 나니 이제 완성됐다는 생각에 피로가 몰려온다……. 결혼 후 8년간의 나의 삶이 순식간에 저 박제된 나비 속으로 푹푹 뭉쳐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작가가 쓴 「침묵하는 나비」라는 글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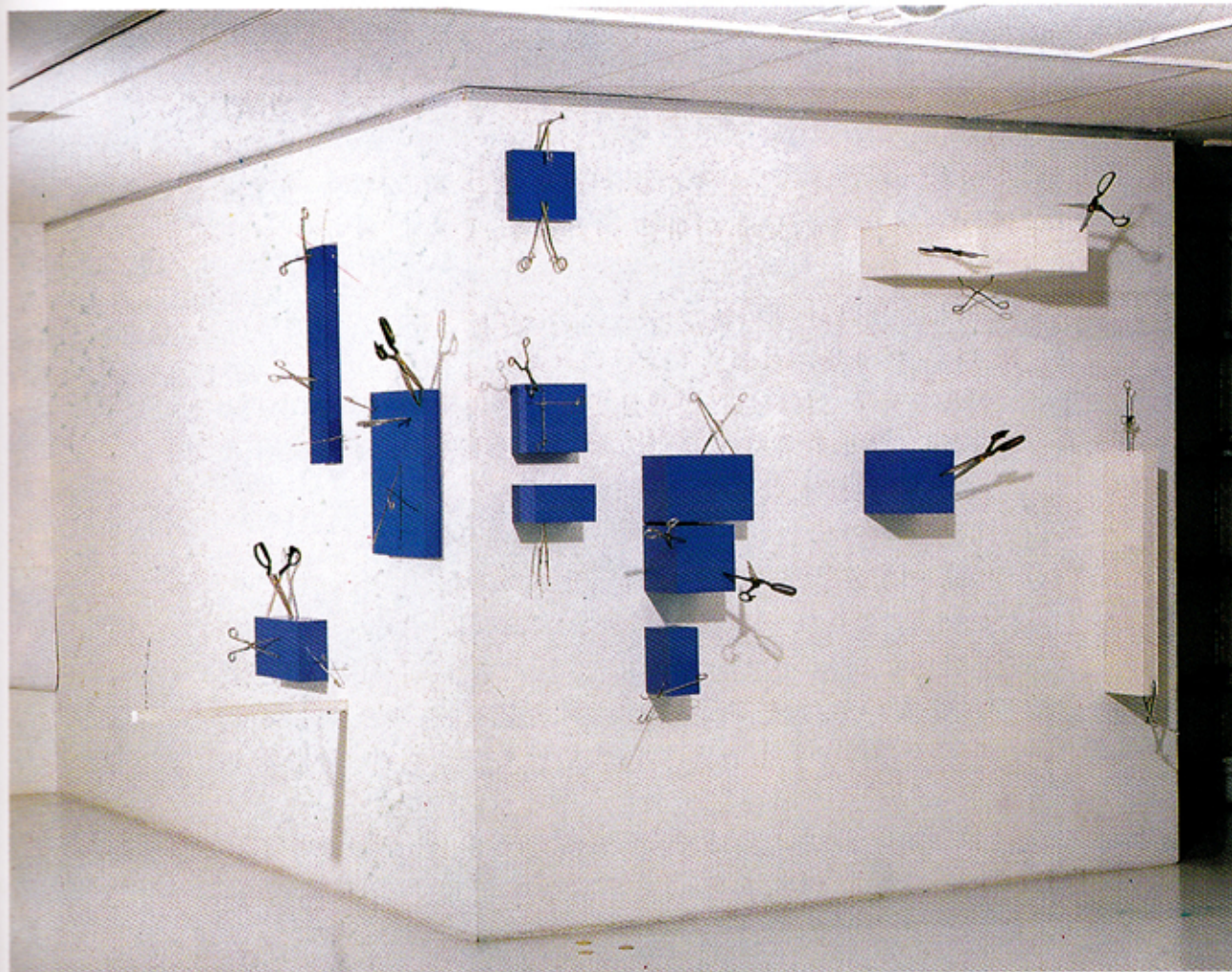
창조적 작업을 하는 사람은 행운아들이다. 갇혀 있는 느낌이면 뭇건 간에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4인 공동작 「이제 크신 어머니께서 자고 계시니, 프로젝트를 위한 부분도링 윤석남작. 천위에 바느질 347×162 1994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 방을 꾸며놓고 그 안에서 페미니즘의 소재를 다룬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음악, 설교, 그림이 동시에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제 크신 어머니께서 자고 계시니」의 이 작품은 화가 윤석남, 목사 김영, 가수 한영애, 사진작가 박영숙 씨 등 4인의 공동작이다.



안필연작 「삼켜진 달」 기위
와 포맥스 350×220×70
1994
에고속에 파묻힌 상실된 자
아를 찾으려는 실존적인 노
력을 형상화한 작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중얼거리며 눈을 돌리는데 아주 「여성적」인 그림이 눈에 띈다. 긴 머리카락이 위로 한껏 끌어올려진 여자모습이다. 접시 안에 갇혀 있다. 눈이 또렷히 박혀있다. 종이부조 위에 아크릴. 날아가고 싶구나. 당신도! 작가 이름을 보니 낯익다. 유연희.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호걸 같던 아이. 「남성성」을 밀쳐놓고, 「여성성」을 표현하는 걸작품을 내용을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밀실에서 혼자 몰래.

김홍희씨가 용인 마북리에 있는 제2 전시관으로 가야한다고 재촉한다. 차멀미를 하면서 낯선 길을 달려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들어섰는데 얼핏 정신을 차려보니 근사한 미술관 같은 건물 지붕이 보인다. 저것이냐고 물으니 김홍희씨가 웃으며 그것은 골프장이라고 우리가 가는 곳은 작은 집이라고 한다. 여자들은 아직도 무척 가난하구나.

작은 시골 집에도 역시 많은 이들이 와 있었다. 조경숙씨가 예의 그 특이한 자세로 태아가 그려진 자기 작품 티셔츠를 입고 서 있다. 낙태전을 했던 홍미선의 모녀 아이콘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는 진지하게 작업을 해 오고 있구나. 하민수의 또 하나의 「침묵하는 나비」, 서숙진의 「그녀-그녀」, 연작. 류준희의 「또 하나의 형질 인형」. 이들 30

대의 작품은 어제 보아도 발랄해서 좋다. 그런데 왜 매번 비슷하다는 느낌을 줄까? 이번 기획전이 너무 서둘러 진행되었기 때문인가?

안필연의 「삼켜진 달」, 푸르고 하얀 오브제에 가위들이 꽃혀있다. 김명희의 목탄화는 이국적 향기를 낸다. 김원숙의 「벼랑 위와 아래」, 늘 그의 그림에서는 검은 붓선이 힘을 느끼게 하고 있다. 양주혜의 「무제」, 요철 스폰지 위에 아크릴, 그의 글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이 그림 앞을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는 도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다.

「점을 계속 찍고 있는 것이 지겹지 않느냐고 묻는다. 솔직히 말해 지겹지 않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곳에도 새겨놓지 않아도 예술이 되었으나 나는 끊임없이 사방에 점을 새겨 놓으면서도 예술이 되지 못한다.」

이 귀절을 읽으며 나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일부러 이 작품을 찾았었다. 그 글에서 나는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강한 자존심을 지닌 여자의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그리고 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40대 모더니스트들은 이제 사회와의 탯줄을 다시 잇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반평 남짓한 창고는 에로틱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영을 위해 꾸며져 있다. 벽은 주홍색과 붉은 점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작가 오경화는 『왜 에로티시즘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리적으로 타고난 욕망들을 거세시키는 이 사회의 결벽증과 엄숙주의에 도전한다. 그로 인해 전도되고 뒤틀린 욕망의 꿈틀거림을 표현하고 싶어했다는데, 나는 별 것을 입어내지 못한다.

윤석남, 박영숙, 김영, 한영애, 네명의 「확실한」페미니스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방에 들어간다. 꼼꼼하게 바느질한 부드러운 천으로 드리워진 문을 지나 따뜻한 통로를 지난다. 「이제 크신 어머니께서 자고 깨니」를 감상하기 위해 들 어간 방-자궁속-은 온도까지 따뜻하다. 슬라이드가 돌아가면서 태아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나는 슬그머니 주저 않는다. 옆에 있던 정신과 의사 친구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아빠와만 친했다던 그. 엄마와는 아직도 화해하지 못했다는 그가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아름답구나. 이 세계는 아름답구나. 그간에 집요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 세상의 어머니를 되살려내려던 윤석남의 노력, 윤석남과 박영숙 사이의 자매애가 「하나님 어머니」를 깨우려는 김영 목사의 사설, 여성해방의 노래로 전투성을 기르던 한영애의 넓

**드디어 사슬을 끊어보기로 한다.
사슬을 곡괭이로 끊어보려 애쓴다.
하필 곡괭이라니!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다. 언제나 성공하지 못할
도구로 탈출을 시도한다니까...
탈출할 길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길을 피하곤 하지. 탈출을
두려워하는 노예처럼 말이야. 하긴,
너무 절박하면 보일 것도 안보이지.**

혀전 자아가 이 속에 어우러져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 있다.

좁은 계단을 지나 이층 작은 방에 들어선다. 이 크, 이것이 무엇? 거울에 둘러싸인 작은 방에 유리조각이 가득 깨져 있다. 나는 어제 머리가 복잡해져서 작가들의 이름을 외우려 들지 않는다. 그냥 유리 조각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본다. 박제된 나뭇가지는 것들이 간간히 시야를 가린다. 무엇인가? 유리조각을 밟으며 뭔가 느껴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잘 잡히지 않는다.

지하실 입구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 쇠침대가 놓여있고 별거벗은 여자가 단정히 누운 사진이 박힌 이불속에 약 캡슐과 주사바늘이 널부러져 있다. 시멘트벽에 철이 되었던가? 왜 이리 음침하지? 유리컵들이 사슬에 한줄로 단정하게 묶여 있다. 닝게르 병인가? 핏자국 같은 것도. 이 작품의 작가가 이 불씨가 이어서 퍼포먼스를 한다 했다. 밖에 역시 쇠침대가 놓여 있고, 트렁크가 있다. 입었던 옷을 벗고 트렁크에서 다른 옷을 갈아입은 그는 트렁크를 들고 떠나려 한다. 그런데 그는 쇠사슬로 침대에 묶여 있다. 침대 주위를 빙빙 돌며 힘껏 끌어보기도 하지만 별 도리가 없다. 드디어 사슬을 끊어보기로 한다. 사슬을 곡괭이로 끊어보려 애쓴다. 하필 곡괭이라니!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다. 언제나 성공하지 못할 도구로 탈출을 시도한다니까... 탈출할 길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길을 피하곤 하지. 탈출을 두려워하는 노예처럼 말이야. 하긴, 너무 절박하면 보일 것도 안보이지.

『목고리를 풀어.』보다 못한 관객의 말 한마디로 「개목고리」가 풀렸고 추운 날 한 페미니스트의 「몸으로 말하기」 단막이 끝났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도 있었고, 출연자의 벗은 몸을 보고 「니글거린다」면서 자리를 피한 남자도 있었다. 이 불씨는 무척 자연스러웠고 퍼포먼스는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다.

이 정도면 페미니즘 미술전이라고 이름하여 손색이 없지 않을까? 3월 26일 「여성적인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획전을 나는 대략 이런 식으로 감상했다. 이미지적 사고에는 약하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신념에는 투철한 한 페미

니스트로서, 인문사회과학자로, 40대에 접어들어 이 땅의 한 여자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읽었다.

그리고는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 기획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여성미술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상 전시회에는 「여성, 그 다름과 힘」이라는 주제에 맞지 않은 그림들이 없지 않았다. 신문에서는 이 그림전을 「여성이 그린 여성성」이라든가 「여성적인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 또는 「페미니즘 미전」 등의 주제로 소개했다. 「모든 과정, 여성 손으로... 성차별관념 비판」이라든가 「여성만의 감성 소중」이라는 작은 제목들도 눈에 띄었다(조선일보 3월 24일자). 「여성」이라는 변수가 많이 들어간 전시회인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흔히 「국민에 의한, 김원숙작 「벼랑 위와 아래」 캔버스에 유채 121×167 1993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라는 말을 쓴다. 마찬가지로 여성해방운동에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세상」을 꿈꾼다. 이 작품들은 물론 「여성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동류끼리 모여 작품전을 하는 미술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인 모임이라해서 특히 주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성을 위한」 작품들이기에 주목을 받는가? 80년대 민중미술계에서는 「중산층 학사출신 여성」에 의한 「기층여성」을 위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었었다. 이들 작품들과 이번 기획전은 또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

민중미술전에서는 여성만의 독자적 운동영역을 마련하는 것에 늘 거부감이 있어왔다면, 여성성과 여성(중심)주의라는 단어가 부각된 이번 전시회는 성모순의 독자성을 공통적으로 깔려고 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쨌든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30대 여성작가들은 윗세대와 매우 다르다. 그들은 페미니즘적 언설이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한 때에 대학을 다니거나 본격적 수련을 쌓은 이들이다. 그들은 그래서 여성이 억압당한 현실을 소재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더 신경을 쓴다.



「페미니즘 미술」 전시의 기획자 김홍희씨

부각시킴으로써 이 전시회는 대중매체로부터 상당한 시선을 끌 수 있었고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에 또한 페미니즘이 한창 잘 팔리는 품목인 지금의 문화시장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기획전이 아닌가? 많은 작가들이 이 기획전에 참여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5, 6년 전에 이런 기획을 하였다면 작가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하려 들었을까? 그동안 무엇이 변했는가? 여성작가들의 의식이 높아졌는가? 아니면 그동안 여성작가들이 피부로 가부장적 억압을 느끼게 된 것일까?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인가?

무척 가능한 이야기이다. 나는 이런 조짐을 미술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교수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실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의는 비단 미술계에만 국

한된 논의가 아니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자들은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가부장제와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는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미술세계로 명실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번 미술전에 참여하면서 딱히 작품에서만 아니라 작가들을 만나면서 지금 여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페미니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작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세대별 분류가 때로는 유용하다. 40대 작가들을 보면 「성」을 초월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로 버티온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으로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학부때부터 남성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신

감을 길러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이제 그 생각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작가 유연희는 그 분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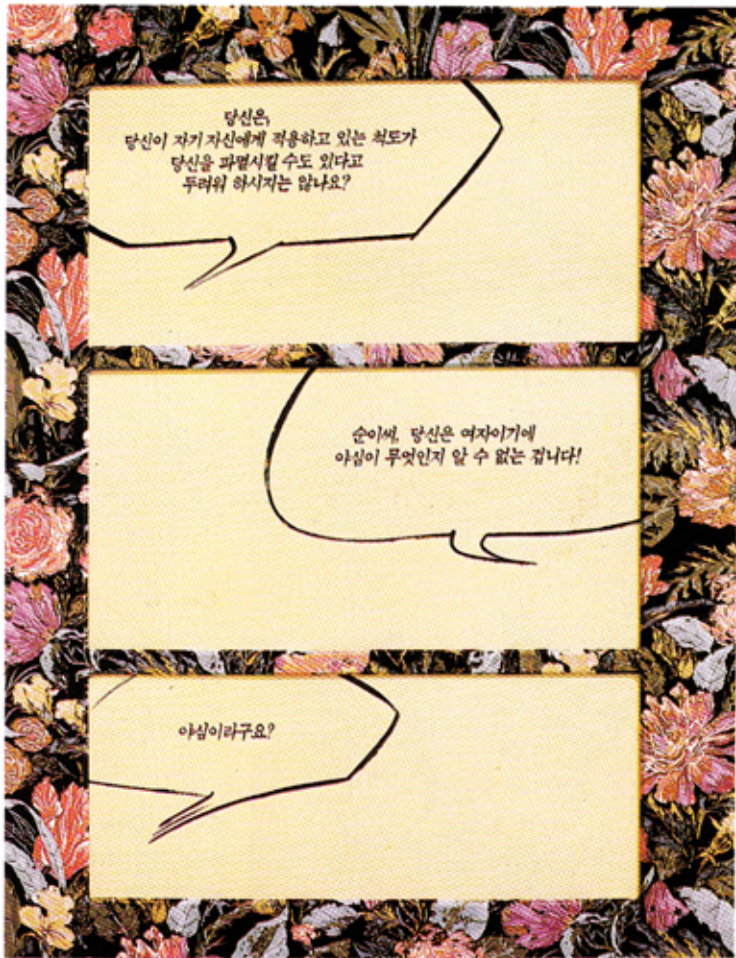
「그 당시 우리와 나이가 비슷한 남성 그룹들이 두 셋 있었는데, 그 중 흥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S. T. 그룹」은 후에 개념미술과 미니멀 아트로 발전하였고, 이념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12월전」은 후에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룹으로 바뀌어 80년대 민중미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이렇게 남성들 그룹이 서로의 위치를 견고히 하며 한국 미술계를 휩쓸던 70년대 말경, 우리 그룹이 차츰 미술계에서 그런대로 시선을 끌어나갈 때 어느 행가 「12월전」 멤버중 몇이 우리 「표현그룹」 전시회에 와서 작품들을 보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지분냄새가 물씬 난다」고 말하고 갔다. 그 뜻은 분냄새가 그윽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만 하는 전시회라 역시 뚜렷한 이슈없이 여성적 냄새가 신물나게 나는 별볼일 없는 그림들 뿐이라는 비아냥거림이었다.」 (도록 74쪽)

능력만 있으면 여자들이 전문가의 세계에서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꿈은 좀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그 세계 자체가 남성중심적으로 조직화된 것이기에 그 근원에서부터 변화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성작가들은, 까미유 끝 모델이 그랬고, 나혜석이 그랬고, 전해린이 그랬듯이, 온갖 비아냥거림속에서 보이지 않는 음모와 압력들 속에서 서서히 자기를 잃어가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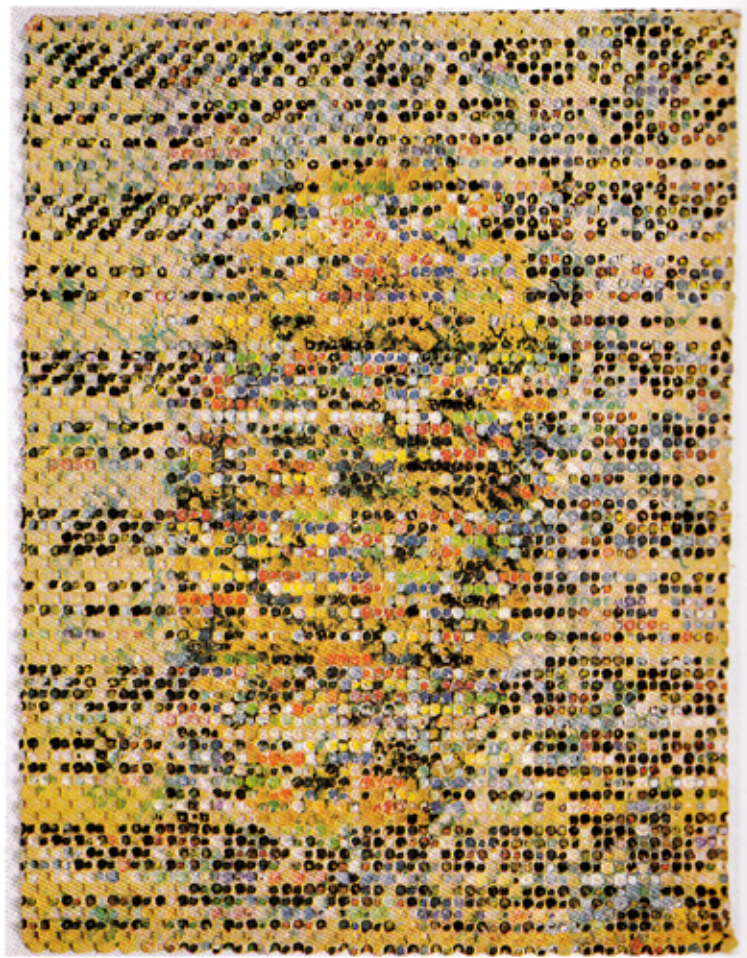
이제 소수이지만 40대의 자존심 강한 모더니스트 여성미술가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자신들이 「여성미술가」로 범주화되어도 게으리 않겠다는 것이 그 변화를 말해준다. 남성중심적 사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이불씨의 퍼포먼스는 여성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와지려는 욕망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숙진작 「그-그녀」 연작중 일부 종이, 형질 및 혼합재료 87×120 1994
이미지가 제거된 서술식 만화 형식으로 소외된 여성의 현실문제를 압축시키고 있다.



양주혜작 「무제」 요철 스펀지 위에 아크릴릭 130×160 1994

회와 충분히 부딪쳤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들의 그림속에는 아직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속의 「여성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성미술」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일함을 보인다. 그것은 도피적이며 자위행위에 그칠 위험이 있다. 지금의 자신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길러진 자인이며, 그런 현재의 자아와 타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적극적으로 다른 「여자」들의 경험과 만나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30대 여성작가들은 윗세대와 매우 다르다. 그들은 페미니즘적 언설이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한 때에 대학을 다니거나 본격적 수련을 쌓은 이들이다. 그들은 그래서 여성이 억압당한 현실을 소재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더 신경을 쓴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페미니스트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게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나 싶다. 외국유학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들이 내놓는 작품을 보면서 불안하게 느끼는 것도 바로 그점에 기인할 것이다. 너무 쉽게 페미니스트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실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그들이 얼마나 우리 현실속에 뿌리를 내려갈지, 그래서 가부장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구성해 나갈지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이다.

이번 미술전에서 나는 그 두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의 작품에 마음이 제일 끌렸다. 50대와 20대의 작품들. 여기서 50대란 50대 여성미술가들의 전형이라 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더 이상 세대론을 펼칠 생각은 없다. 윤석남씨는 문학계의 박완서씨처럼 40이 되어서 뒤늦게 작품활동을 시작한 여성이다. 그가 80년대 초반부터 집요하게 페미니즘 미술을 추구해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남다른 경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일반적 미술가들이 가진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보이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미술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말하기 위해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한 자아인식과 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모성전」 이후 그의 작품활동은 여성미술가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고, 이번에 이러한 기획전을 하게 된 배경에도 그러한 활동들이 보이지 않는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윤석남, 박영숙 등이 만든 작품 「자궁의 소리」(별명)는 가부장제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이 불씨의 작품과 일맥상통한다. 함께 간 학생은 이 불씨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페미니스트이다 못해 반페미니스트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 작품의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반성적 사유의 틈을 주지 않으며, 죽음의 의지만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그의 작품에는 빛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나려면 「죽어야만 한다」는 상정을 그리는 모를까? 극단의 허무주의와 희망은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요즘 해 왔다. 단일하게 권리를 찾는 시기는 지났다. 이중 삼중의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권리찾기」운동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 있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차근차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겹의 모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삶과 죽음의 원리의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보다 근원적이고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에 묻혀버리지 않기 위한, 깨어있기 위한 게릴라전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시대는 예술가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프로」가 되라고 부추킨다. 아니면 「영혼을 지키는 순교자」가 되라고 한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유연희작 「생각에 잡혀」 종
이부조 위에 아크릴 115cm-
ameter 1994
자의식과 내면세계를 투사시
켜 여성성을 자연스럽게 도
출시키고 있다.

예술가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자기가기 위한」 투쟁을 하는 예술가들이다. 자기가 선 구체적 자리에서 크고 작은 폭력들과 맞서서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는 이들. 이 시대의 예술가는 더 이상 특정매체에 숙달된 전문가가 아니라 삶을 살면서 계속 불편을 느끼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이다. 필요하다면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내고야 마는 사람이다. 나는 여성미술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삶속으로 뛰어들기를 바란다. 여성미술가들을 초대하는 화랑이 많지 않다고 불평을 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을 통한 의사소통을 해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여성미술가들이 전통적인 전시회장에서 뛰쳐나올 때를 기다린다.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지난 달에 과천 국립미술관에서 본 「민중미술전」을 떠올렸다. 10년이 채 되기 전에 여성미술가들 역시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그런 자리에 초대될 것이다. 그때 페미니즘 미술은 「너무 이론적이어서 우리 현실을 「형상화」해내는 데 실패했다」거나 「너무나 개별적인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에 여성운동 면에서도 예술적 면에서도 별로 공헌한 것이 없다.」는 식의 비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대영박물관에서

여성미술가로 범주화되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지 않을 것 같다
한 작가의 말을 들으며 나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여성작가들 사이에서 퍼져감을 본다.
「정치성의 정치학」이 시작됨을 본다. 「다름」을 열등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힘」으로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본다.

한국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작품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작품이 있어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전시를 못한다는 큐레이터의 말도 들었다. 삶속에 깊숙히 빠져들지 않는 작품은 늘 가짜일 수 밖에 없다.

한국미술은 언제 삶속으로 뛰어들건가? 미술비평계는 언제 서양에서 흘러 들어온 개념과 분류 없이 비평의 글을 쓸 수 있게 될것인가? 내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당연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술계의 식민지성을 벗겨내는데 그들이 중요한 몫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해온 소외집단들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에 의한 자신들의 미술」의 시대를 열어가는 「다중적 주체」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성」을 재규정하듯 「예술」을, 또 「정치」를 새롭게 규정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미술가로 범주화되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지 않을 것 같다 한 작가의 말을 들으며 나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여성작가들 사이에서 퍼져감을 본다. 「정치성의 정치학」이 시작됨을 본다. 「다름」을 열등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힘」으로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본다. 주변화된 존재로서의 피해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주변인으로서의 잠재력으로 새로움을 일으키는 여성들에 의한 영구적인 문화혁명은 이제 시작되는가? **광정**

*** 참고문헌 ***

김홍희 편저, 1994. 「여성, 그 다름과 힘 : 여성적인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 삼신각.